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차현욱 개인전, 《저공비행(Low Glide)》



전시제목:	저공비행(Low Glide)
참여작가:	차현욱(b. 1987)
전시기간:	2024년 5월 1일(수) – 6월 22일(토)
전시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종로구 율곡로 85) 4층
전시작품:	회화(총 17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 전경]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SEOUL → 20240501-20240622 차현욱, 저공비행 CHA Hyeonwook, Low Glide

[문의]

이상미 매니저 담당 M. 010 8970 8415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

박미란 팀장 M. 010 6768 8812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6월 22일(토)까지 **차현욱**(b. 1987) 개인전 《**저공비행**》을 연다. 차현욱은 기억과 상상 속에 자리한 자연과 사람의 풍경을 잔잔한 몽환적 분위기의 회화로 표현한다. 기법 상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의 뒤섞임이다. 한국화의 형식과 재료에 기반한 그의 회화는 전통적인 채색화 기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한지에 압을 주어 자국을 내고, 입체감을 얻은 표면 위에 겹겹이 색을 올려 섬세하게 채색하는 그만의 응용된 방식으로 대상과 풍경을 묘사한다. 아라리오갤러리 4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차현욱의 신작 회화 총 17점을 만나볼 수 있다. 현실의 소재와 작가의 상상이 결합하고, 과거와 현재의 서사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롭게 구축된 세계의 경관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전시다.

## 2. 전시주제

※ 출품작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 요청 드립니다. © Artist & ARARIO GALLERY



차현욱, <저공비행>(2024)

한지에 안채, 호분. 170 x 142cm



차현욱, <부유하는 밤>(2024)

한지에 안채, 호분. 170 x 1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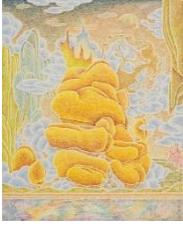


차현욱, <이방인의 난제들>(2024)

한지에 안채, 호분, 80.3 x 65.2 cm

이번 전시의 주제어 '저공비행'은 작가 자신의 작업, 즉 '그리기'를 대하는 태도와 사용하는 기법을 표현한다. 넓은 숲을 낮게 비행하며 풍경과 가까이 스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작가의 삶 속 투쟁과 때로는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더불어 한지 위에 마른 붓질로 색을 겹치고, 압을 주어 선과 같은 자국을 남김으로써 수분이 깊게 스미지 않도록 하는 독특한 제작기법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차현욱은 먹을 운용할 때처럼 마르고 짧은 붓질을 쌓아가는 방식을 채색에 응용한다. 한국적 산수화의 준법에서 비롯된 '선'을 주요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화 안료인 분채를 아교 및 천연 전분과 혼합하여 만든 수성물감인 '안채'와 조개 껍질 등 천연 석회를 재료로 하는 '호분'을 사용하면서도 색과 대상의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배합과 배치, 기법의 변용에 있어 서양 회화의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특성은 차현욱으로 하여금 한국적 산수화와 서구적 풍경화 사이 경계를 허물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현욱의 작품 세계는 기억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독특한 탐구 방식을 펼친다. 그의 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기억들을 수집하고 예술적 형태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이러한 창작 과정 속에서 작가 스스로는 주변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개인적인 타임라인을 구축한다. 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수집가와 달리 평범한 사물이나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창의적 접근이 드러나며, 이를



차현욱, <낮달나무>(2024)  
한지에 안채, 호분, 65.1 × 5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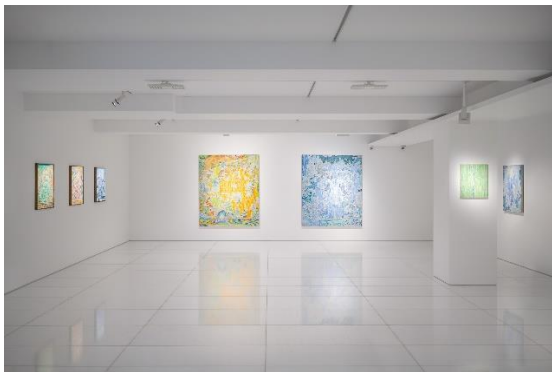


차현욱, <이방목>(2024)  
한지에 안채, 호분, 65.1 × 53 cm

통해 형성된 기억의 조각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대상과 장면을 창조한다. 특히, 차현욱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와 구름은 기억과 감정을 형상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형성된 작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여기는 자아의 탐색을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의 파편들이 조합되고 변형되어 새로운 현실과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의 작품 속 버드나무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향나무는 어색하고 이질적인, 타지에서 이주한 또 다른 이방인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다. 낮과 밤의 경계에서 발견되는 '낮달'과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풍부하면서 덧없는 구름 등의 자연에서 비롯된 상징들은 시간의 경계와 작품의 몽환적인 풍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차현욱은 끊임없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현실과 미래,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낸다.

3. 전시전경

※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 요청 드립니다. © Artist & ARARIO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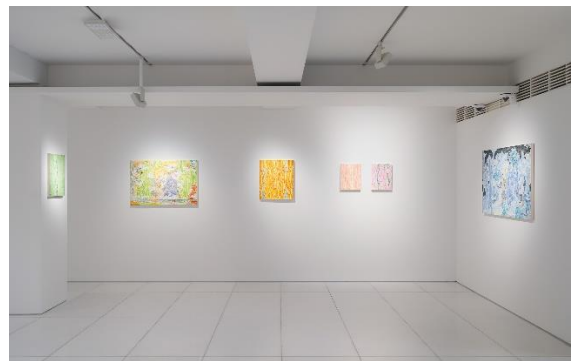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전시전경

#### 4. 작가인터뷰

인터뷰어: 아라리오갤러리 (이하 아)

인터뷰이: 차현욱 작가 (이하 차)

아: 안녕하세요, 차현욱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차: '이 가득한 여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탐구하며 작업하고 있는 차현욱입니다.

아: 아라리오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작가님의 첫 개인전입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지으신 전시명 《저공비행》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 이번 전시의 주제어로 선택한 '저공비행'은 스스로의 작업, 즉 '그리기'를 대하는 태도와 사용하는 기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상상한 저공비행의 장면은 넓은 숲을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고도의 불안 요소를 넘어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공비행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과 닿을 수 있는 대상들을 스치며 비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는데, 작가로서의 투쟁과 때로는 좌절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업의 기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한지에 수분이 깊게 스미지 않도록 얇은 분무질로 표면만 적당히 적신 후, 한지 표면의 섬유질을 마른 붓질로 스치며 색을 겹치고 표면에 압을 주어 선과 같은 자국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태도와 기법 양 측면을 포괄적으로 은유할 수 있는 표현을 고민한 결과 '저공비행'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자신의 작업 방식이 수집가의 행위와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에 새로움을 부여하고, 수집된 기억 위에 낯선 요소를 더해 가며 장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자연의 경관을 묘사한 화면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서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적 산수화의 변주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화폭에 담은 대상들이 어떠한 기억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으로 꼽으신 <저공비행>(2024)과 <부유하는 밤>(2024)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차: 서양의 풍경화와 대조하여 동양의 산수화가 당대의 관념 및 사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을 주지할 때, 제 작품을 어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면 산수화로 명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수화는 단순한 풍경(Landscape) 너머의 정신, 화가가 속한 시대의 학문 및 사회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아울러 재현하는 장르입니다. 미디어가 발전하기 이전의 과거에는 서로 다른 개인이 각자의 세계관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았을 터라 산수화적 접근법이 용이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 다시 소환하여 바라보면, 산수화적 접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풍경화의 접근법보다 더 메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은 '기억'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한 기억의 발현 및 구축의 방식을 화면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모여 만든 낯선 세계의 모습을 화면 위에 묘사하는 일을 통하여서입니다. 그 조각들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산수화와 역사)을 학습한 것(간접적 기억), 자신이 살아오며 관계 맺고 이야기를 만들었던 기억(직접적 기억)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현재의 타임라인에 불러들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이 수집가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방법론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산수화에 대한 공부를 통해 발견하고, 회화를 포함한 현대 미술을 공부하며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저공비행>과 <부유하는 밤>에서는 특정 관계에서 일어나는 접촉 및 예술적 감응을 표현합니다. <저공비행>에 펼쳐진 장면은 기억 속 파편처럼 떠돌던 버드나무와 구름의 이미지를 수집 및 접목하여 만든 버드나무 구름의 도상인 '류화운'을 주요 소재로 합니다. 과거 전시에 선보인 '류화운'에 대한 기억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발발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묘사된 작은 인물은 버드나무 구름의 끝자락에 손을 뻗어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공비행'하듯이, 대상과 스치듯 맞닿는 태도로서 말입니다. <부유하는 밤>은 아내와의 관계로부터 촉발된 장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간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복잡한 한편 가장 단순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다채로운 색상과 대상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 구름, 달과 같은 자연적 도상이 화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한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낮밤의 풍경을 묘사한 저마다의 화면들에서 시간이 지나는 의미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차: 저는 한편으로 이항대립의 '사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물, 낮과 밤, 뚜렷함과 흐릿함, 여백과 가득함 등등..... 우리가 뚜렷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틈새(경계)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멈출 수 없는 지속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결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가장 큰 힘은 이처럼 결말 없는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나무는 오랜 과거부터 영험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우리 곁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쓸모에 맞는 사물로 가공 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달은 어두운 밤에 드러나는 달이 아닌, 낮과 밤의 사이에 목격되는 '낮달'입니다. 구름은 명확하지만 흐릿합니다. 덧없지만 풍부하고, 그것이 있기에 그 너머가 더욱 궁금해지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관념의 사이에 존재하는 대상을 찾아 자신의 작업 세계를 비유 또는 은유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 작품에서는 버드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근작에는 향나무 등 새로운 종류의 나무를 다수 묘사하신 점이 눈에 띕니다. 화면에 담을 나무의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에 담고자 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 버드나무는 고향에 대한 기억의 파편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근작들의 세계관에는 향나무가 추가됩니다. 향나무는 '또 다른 이방인'의 비유입니다. 외래종인 향나무는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조경수로서 익숙한 나무입니다. 향나무는 주로 현지인들에 의해 가지와 잎사귀가 잘린 채 정형화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대학원 시절 관리되지 않고 거칠게 방치된 숲 사이로 이렇게 조경된 향나무를 봤습니다. 볼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요상하다, 요상해'라며 중얼거렸어요. 너무도 익숙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이질적인 이 나무를 보며 타지에 흘러 들어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방인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근작 화면 위에 다른 대상들과 달리 둥글게 인위적인 선의 외형을 가진 향나무에 지난 기억 속 파편들이 들러붙으며 만들어지는 세계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저처럼 '요상하다'를 중얼거리실 수도 있겠고, 아름답다거나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인상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음표를 생성하는 시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 '이방인'을 주제로 다루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차: 저는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방인이라고 여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타인과 마주하고, 매년 달리 관계 맺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 개념인 '정착'은 소속이 있거나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착은 결국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의해 다시 자리를 옮기거나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운명일지, 아니면 인간의 운명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끊임없이 이주 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보금자리를 떠나 이주해 왔습니다. 아주 넓게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도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은하도 마찬가지로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위해 끝없이 이주하며 살아왔고, 그로써 경험한 모든 사건이 저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있어 누구나 이방인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은 단지 나와 다른 경계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낯섬을 목도하고 수용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동반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인류는 모두 이방인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아: <고양이의 시간>(2024)의 작품명이 인상적입니다. 작품이 말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차: <고양이의 시간>은 고양이가 이방의 향나무에 발톱 자국을 내며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의 시선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의 마음도, 진정성도, 완벽히 당사자의 시점에서 알 수 없는 법이기에 사람이 아닌 대상이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해석과 상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절대 모르겠죠. 작업실 앞에 밤마다 나타나 어둠 속을 응시하는 고양이를 보며 문득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완전한 타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리기라는 행위로 발견하고자 하는 이방의 시간, 사이의 시간이 아닐지 상상하며 그

렸습니다.

아: 출품작 중에 인물이 작게 등장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푸른 겨울의 밤>(2024)과 <삼체의 밤>(2024) 등의 작품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그리시는 것일까요?

차: 화면 속 인물들은 특정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푸른 겨울의 밤>과 <삼체의 밤>에서는 앞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모습, 그리고 어떠한 장면 앞에서 호흡을 잠시 멈추는 순간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과거 큰 바다를 바라보던 자신의 뒷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와중에 한 번의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찰나는 저에게 생각보다 큰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적 상상이 뿔어져 나오고 비로소 그리기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예술적 사고는 생각보다 우연히, 그리고 짧은 찰나에 발견되고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안의 인물은 그러한 순간의 정서를 시각적 장면으로서 형상화한 결과물입니다.

아: <삼체의 밤>(2024)의 작품명에 담은 의미가 궁금합니다.

차: '삼체'는 대학원 시절 '상호관계'에 대한 레퍼런스를 고민하다가 찾은 '삼체문제'와 류츠신의 소설 '삼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체문제는 중력을 가진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분석인데요, 두 대상의 관계성보다 하나가 추가되어 세 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즉 삼체가 되는 순간에 역학관계와 운동에 대한 분석이 아주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과 실시간적인 시간성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류츠신도 이러한 삼체문제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상 과학 소설을 만들었고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 또한 자신, 나아가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남아 있다가 재조합되어 현재로 새롭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기억 조각이 모여 현재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나아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혼란을 이야기하는 조건들, 이것이 자연의 본래 모습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설명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체'에 관한 이야기를 화면 안에 끌어들이었습니다.

아: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틈과 사이의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채워짐'과 '비워짐'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시도의 측면에서요.

차: 동양화에서 말하는 여백의 기능은 시각적으로도 비어 있는 공간을 표현하며 작동합니다. 이 공간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공(空)'은 'empty'의 공허함이나 무의미함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아직 의미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사로잡히지 않은 것, 다른 말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주지했을 때 만약 제가 그리는 '행위'라는 것이 의미화의 영역이 아니라면, 제가 가득 채워 그려 놓아도 결국 채울 수 없는 것의 틈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고 마른 갈필의 붓질 속에도 가느다랗고 얇은 여백이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선을 통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고, 긍정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대의 여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인류의 어느 시대보다 촘촘하며 복잡하고 정교한 관계망을 구축한 현재의 여백은 어떤 모습일지, 과거 사람들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여백의 공간은 과연 있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가 옳거나 더 낫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비관주의적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촘촘하고 복잡한 관계망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백, 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여백의 현재 모습은 가늘고 기다란 선의 형상입니다. 대상과 대상 사이에 남아 있는 가늘고 흰 선을 생각했어요. 제 작업에서는 이 경계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객체로 존재하면서도 다른 타 대상들과 어울리며 질문을 생성할 수 있는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아: 한국화를 전공하셨고, 한국화 재료를 사용해 작업하시지만 한편으로 전통적인 한국화 기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며 자신만의 방법론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차: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혼합하는 점이 나름의 기법적 특징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써 한지에 채색하는 작업이기에 채색화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세부적인 기법은 전통적인 채색화 기법을 따르지 않는 점이 그렇습니다. 붓질의 측면에서 마르고 짧은 갈필을 쌓아가며 그리고 있는데, 이는 먹을 운용하는 방식을 닮았습니다. 그 방식을 채색에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 '선'은 산수화의 '준법'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준법은 동양화에서 대상의 특징과 장면의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을 운용하는 방법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을 표현하기 위해 면과 입체감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서양화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모필의 운동성과 강약, 수분의 양으로 종이 위에 그려나가는 방식이지만 저는 한지에 압을 주어 자국을 내는 방식으로써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고유한 주름을 포착하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서양화에서는 주로 밑그림을 그린 후 채색을 더하는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 한지에 압을 주어 흔적을 남기는 작가님의 밑그림 방식이 특별하고 인상적입니다. 재료와 기법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일견 색연필로 채색한 듯한 화면이 몽환적인 정서를 전달하는데요. 색을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료의 측면에서 '안채', '호분'등의 사용 방식 또한 알려 주세요.

차: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데 있어 단일한 계열의 색을 사용할 지, 또는 다양한 색을 활용할 지 고민합니다. 단일한 색채로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가 부각됩니다. 한편 다양한 색이 혼합된 장면에서는 형상 자체나 서사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조됩니다. 파편을 재조합하여 구



축한 화면 구성이 보는 이의 시선 또한 다각도로 움직이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대상의 색상과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자 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안채는 전통적인 한국화 안료인 분채를 아교 및 천연 전분과 혼합하여 사용성이 좋도록 만든 수성물감입니다. 호분은 흰색의 안료입니다. 굴이나 조개의 껍질을 건조, 정제하여 얻어지는 석회 성분을 재료로 만드는데, 발색이 좋고 햇빛에 강한 특성을 지닙니다. 원하는 색을 얻기 위해 안채를 조합하거나, 한지에 압필로 만든 자국 위에 호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작가의 입장에서, 이번 전시에서 관객이 특별히 주목하기 원하는 지점이 있으실까요?

차: 전시명인 《저공비행》은 저의 작업 태도와 기법을 은유하는 동시에 제가 선보이고자 하는 일종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이방의 대상들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를 유심히 관찰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는 한국적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사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뒤섞으려는 태도가 담겼습니다. 범관과 광희의 북송시대 대관산수에서 영향받은 구도, 선으로 대상을 묘사되는 준법의 변용, 자연 대상과 인물 또는 생명체가 관계 맺는 방식이 작품세계의 뼈대를 이루는 한편, 색과 대상의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배합과 배치, 기법의 변용 등은 회화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장르의 그림을 동시에 공부했기에 드러나는 그러한 특성을 전시로부터 발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근작은 과거 작품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점이 있나요?

차: 앞서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서는 이방인이 되어 되돌아간 고향의 기억 조각을 모아 새로운 현재의 장면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향나무를 화면에 더해 기억의 파편을 수집 및 재조합했습니다. 과거의 서사에 현재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화면을 구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방인의 그림자로 선정한 향나무는 관공서와 학교의 조경수로 많이 심긴 '가이스카향나무'입니다. 잔가지가 많아 형태가 다양하고 관리하기 좋아 많이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다른 나무로 대체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땅에서 자라던 이 나무는 인간에 의해 다른 땅으로 이주되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로 둥글게 조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원 시절 유난히 크고 우악스럽게 다듬어진 이 향나무가 많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타지에서 이주한 직후, 적응 과정을 겪던 상황에서 마주한 향나무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더 이질적으로 만드는 듯했고 매일 저의 시선에 걸리며 이방의 모습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방인의 태도와 그 모습을 향나무를 통해 이야기하고, 지난 전시에서 반영된 버드나무와 뒤섞이며 또 다시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냅니다.

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 앞으로는 '관계와 연결'에 대하여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과 연결선상에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까지 그러한 주제가 개별 작품이 가지로서 뺏어 나올 수 있는 줄기의 역할을 해주었다면, 이후로는 관계와 연결을 은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이야기의 파편들을 이어 붙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계속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 5. 작가소개

차현욱(b. 1987)은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를 졸업했다.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부산(2023),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2022),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2015)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금호미술관, 서울(2022), 대구예술발전소, 대구(2020),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진도(2018) 자하미술관, 서울(2018), 대구미술관, 대구(2017),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2017), 포스코갤러리, 포항(2016),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2016, 2014) 등 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18년 '올해의 청년작가상'(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20년 '제4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 우수상(광주은행, 광주)을 수상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서울대학교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6. 작가약력

### 차현욱

1987년 한국, 부산 출생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 학력

2022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서울, 한국  
201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학부 졸업, 서울, 한국

### 주요 개인전

2024 저공비행,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3 이방인의 난제들,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부산, 한국  
2022 조금 더 가까이,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한국  
2020 그림자밟기, Gallery 175, 서울, 한국

- 2018 밤에 핀 꽃,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2015 회상된 습작,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 주요 단체전

- 2023 모노맨션, 별관, 서울, 한국  
 Happy Birthday 1: Green to Blue, 그블루갤러리, 서울, 한국
- 2022 애드 아스트라,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 화성, 한국  
 어떤 삶, 어떤 순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BGA INDEX : OPEN STORAGE, BGA인텍스, 서울, 한국  
 아트페스타인제주, 산지천갤러리, 제주, 한국  
 아래로 흐르는 물결과 내일을 비추는 만화경,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한국
- 2021 그들의 그림자, 공간독립, 대구, 한국  
 INVISIBLE MONUMENTS, 시안미술관, 영천행맨, 창성동 실험실, 서울, 한국  
 동행전, 신세계갤러리, 대구, 한국
- 2020 Culture Tube 2020, 신세계갤러리, 대구, 한국  
 팬데믹,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노래하던 새들도 지금은 사라지고, 산수문화, 서울, 한국  
 우리에게 온 숲, 수피아미술관, 칠곡, 한국
- 2019 그림이 크기 때문이다, 아트딜라이트, 서울, 한국  
 Culture Tube 2019, 신세계갤러리, 대구, 한국  
 빠르고 가볍게 미끄러지기, 동소문, 서울, 한국
- 2018 외딴곳 Middle of Nowhere,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한국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옥산미술관, 진도, 한국  
 신몽유도,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 2017 안평대군의 비밀정원: 비해당 48명의 현대적 상상화,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풍경표현,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낭만창전,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한국  
 AXIS 2017, 021 Gallery, 대구, 한국
- 2016 기운생동, 포스코갤러리, 포항, 한국  
 도큐먼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MOUNTAINS, 보데갤러리, 대구, 한국
- 2015 BODE Young Artist Project, 보데갤러리, 대구, 한국
- 2014 강정현대미술제-강정에서 물, 빛, 디아크, 대구, 한국  
 비상한 비상, 신미술관, 청주, 한국  
 7개의 감각, 8개의 감성 7 sense & 8 sensibility,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Critical Point, Space K, 대구, 한국

2013 동방요괴 트라이앵글 아트 페스티벌,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풍경에 대한 시선, 오픈 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

Art Space Purl Young Project 3: 0% 3, 아트스페이스 펄, 대구, 한국

### 수상

2020 제4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 우수상, 광주은행, 광주, 한국

2018 올해의 청년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 레지던시

2014-20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8기, 청주, 한국

2012-2013 가창창작스튜디오 12기, 대구, 한국

### 주요 소장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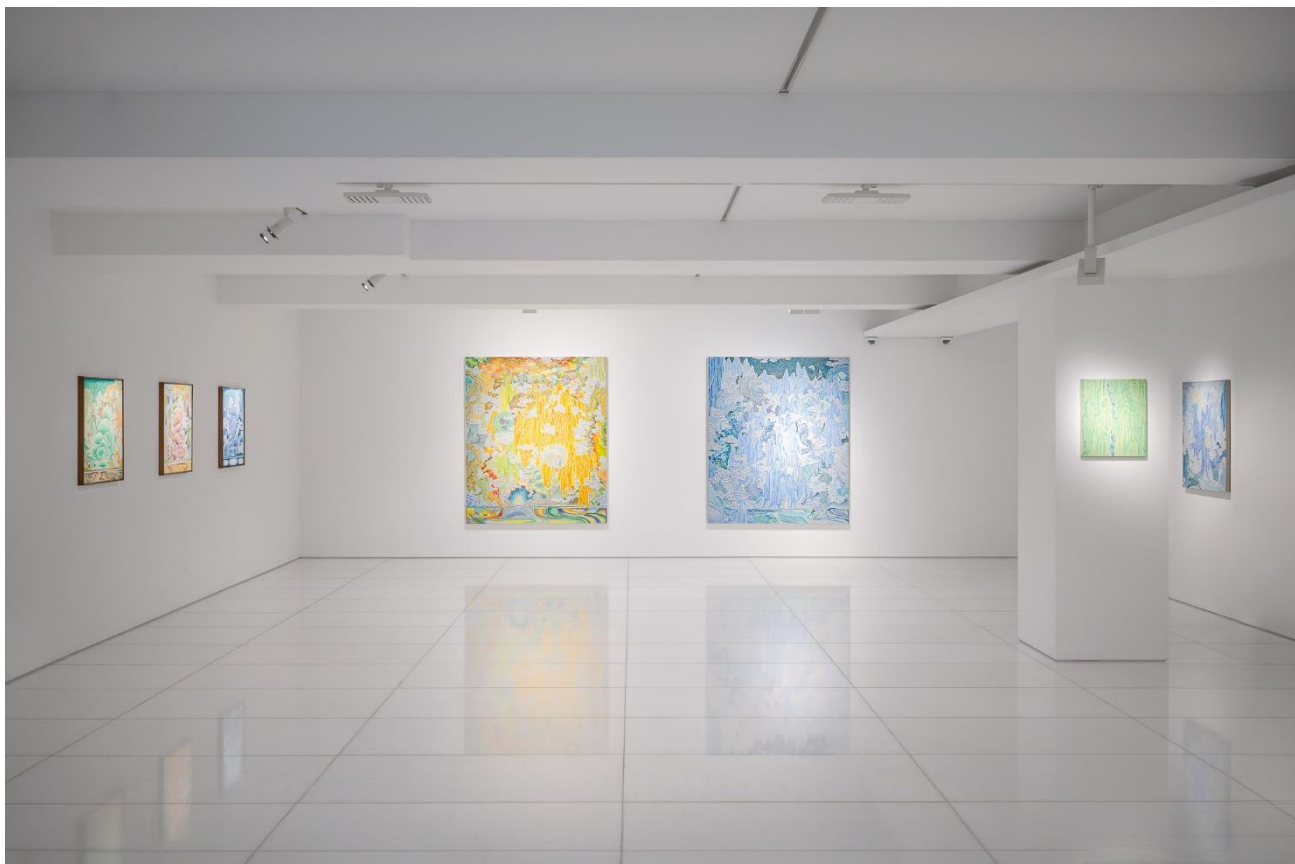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국

대구미술관, 한국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

서울대학교미술관, 한국

ARARIO GALLERY SEOUL  
CHA Hyeonwook: *Low Glide*



<b>Title</b>	: Low Glide
<b>Artist</b>	: CHA Hyeonwook (b. 1987)
<b>Dates</b>	: 1 May (Wed) – 22 Jun (Sat) 2024
<b>Venue</b>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03058) 4F
<b>Artworks</b>	: Total 17 works (Paintings)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6QFrv82ZaWWhvqfhqrcauQm-V5Lh72t-?usp=sharing>

**[Contact]**

ARARIO GALLERY SEOUL / T. +82 (0) 541-5701 / E. [info@arariogallery.com](mailto:info@arariogallery.com)

**[Media Enquiries]**

Sangmi RHEE, Manager, M. +82(0)10-8970-8415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mailto:sangmi.rhee@arariogallery.com)

Miran PARK, Deputy Director, M. +82(0)10-6768-8812 / E. [miran.park@arariogallery.com](mailto:miran.park@arariogallery.com)

##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CHA Hyeonwook's (b. 1987) solo exhibition, entitled *Low Glide*, from 1 May (Wed) to 22 June (Sat), 2024. CHA Hyeonwook (b. 1987) expresses nature and human figures that reside in his imagination and heart through dreamy yet tranquil landscapes. His work is characterized by a mixture of tradition and modernity. While he bases his work on the form and materials of Korean painting, his painting technique does not fully adhere to the traditional method of color painting. He creates layers of color on a textured surface by applying pressure to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adding dimensionality, using his own adapted method of painting to depict the subjects and landscapes he wishes to express. His solo exhibition *Low Glide*, held at ARARIO GALLERY SEOUL's fourth floor space showcases a total of 17 new paintings by CHA. The exhibition vividly showcases a newly constructed landscape, where reality and the artist's imagination converge, and narratives from the past and present intersect.

## 2. Exhibition Theme

※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Credit for all Artwork Images: © CHA Hyeonwook. Courtesy of the Artist & ARARIO GALLERY



***Low Glide*** (2024),  
Powdered color pigment on hanji,  
170 x 142cm



***Enigmatic Entities*** (2024)  
Powdered color pigment on hanji,  
170 x 142cm



***Stranger*** (2024)  
Powdered color pigment on hanji,  
80.3 x 65.2 cm

The theme of the exhibition 'low glide' represents CHA's artistic approach towards his work of 'draw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current techniques. It evokes the imagery of flying low over a vast forest, brushing closely with the landscape, reminiscent of the artist's life struggles and his journey to overcome frustrations. Moreover, it serves as a metaphor for his unique technique of layering dry brush strokes on 'hanji' and creating line-like impressions by applying pressure, which are techniques that prevent moisture from deeply penetrating. CHA applies this technique of dry, short brushstrokes, similar to his use of ink, to coloring. He uses 'anchae', a watercolor made by mixing Korean painting pigments with glue and natural starch, and 'hobun', made from natural lime such as seashell, all while employing elements of line derived from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painting. Simultaneously, CHA adopts a Western painting attitude in the spontaneous combination and placement of colors and subjects, and variation in techniques. These characteristics play a crucial role in allowing CHA to break the boundaries between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landscape painting, thus establishing his unique artistic oeuvre.

CHA Hyeonwook's artistic realm explores memory as a key theme, connecting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a unique manner. His works are born from the process of gathering both direct and indirect memories from personal experiences and recreating them in artistic form. Within this creative process, CHA constantly interacts with the surrounding world, constructing a personal timeline formed through these relationships. His works reveal a creative approach that assigns new value to ordinary



**Daymoon Tree** (2024)  
Powdered color pigment on hanji,  
65.1 × 5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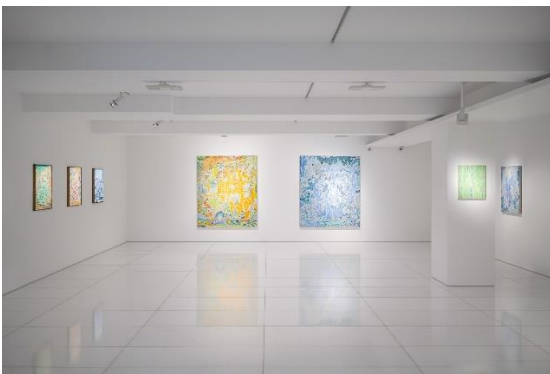


**The Travelling Tree** (2024)  
Powdered color pigment on hanji,  
65.1 × 53 cm

objects or concepts, unlike traditional collectors, combining these fragments of memory to create new subjects and scenes. Trees and clouds, frequently appearing in CHA's works, are important elements that symbolize memories and emotions, expressing the artist's exploration of self as a stranger, shaped by his memories from moving across various regions. In this journey, he contemplates his identity amidst the ever-changing society, as fragments of memories combine and transform over time, creating new realities and futures. The willow tree in his works metaphorically represents memories of his homeland, while the newly introduced juniper represents the awkward and alien, the expression of another stranger who has migrated to a foreign land. Symbols derived from nature such as the 'day moon' found at the boundary of day and night, and the abundant yet ephemeral clouds frequently seen in the scenes, are crucial elements that construct the boundaries of time and the dreamlike landscapes of his work. CHA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future, fact and fiction, in his unique way amidst the constant change and flow of time.

### 3. Installation

※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Credit for all Installation view Images: Courtesy of the Artist & ARARIO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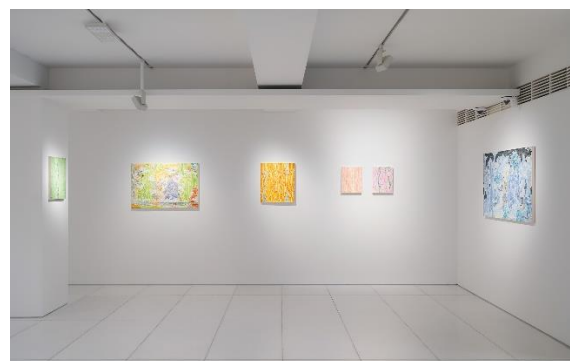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4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4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4F)



Installation view of ARARIO GALLERY SEOUL (4F)

#### 4. Artist Introduction

CHA Hyeonwook (b. 1987) studied Korean painting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with a Master of Fine Arts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HA has held solo exhibitions in Gallery Playlist, Busan (2023), The Necessaries, Seoul (2022), Daegu Art Center, Daegu (2018) and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5). CHA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such as those held at Kumho Museum of Art, Seoul (2022), Daegu Art Factory, Daegu (2020), Gachang Art Studio, Daegu (2018),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Jindo (2018), Zaha Museum, Seoul (2018), Daegu Art Museum (2018),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Daegu (2017), Posco Gallery, Pohang (2016),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6, 2014). CHA was awarded the 'Young Artist of the Year' (Daegu Art Center, Daegu) in 2018 and the '4th Gwangju Hwaru Artist Award' (Gwangju Bank, Gwangju) in 2020 and his works are in public collec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t Bank, Daegu Art Museum, Daegu Arts Center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 5. Artist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er: ARARIO GALLERY (hereafter A)

Interviewee: Artist CHA Hyeonwook (hereafter C)

A: It's a pleasure to meet you. Could you provide a short introduction of yourself?

C: I'm CHA Hyeonwook, an artist working on the question, 'how can I express this full empty space?'

A: This is your first solo exhibition at ARARIO GALLERY. You personally made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s *Low Glide*.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behind the title in relation to your work?

C: The theme 'low glide' represents my approach to work, or 'drawing,' and symbolizes the current techniques I employ. I envisioned a scene of low glide flying over a vast forest. One reason planes increase altitude is to overcome the uncertainties of low altitude and maintain stable flight. However, low gliding maneuvers through uncertainties, brushing objects it can reach. This resembles my attitude towards life, as it reminds me of the process of overcoming struggles and sometimes setbacks as an artist. The technique of my current works is similar to this as it involves lightly misting the surface of hanji to prevent moisture from deeply penetrating, then brushing the fibrous surface with a dry brush to layer colors, and pressing on the surface to leave line-like marks. In this way, I considered expressions that could metaphorically represent both attitude and technique, leading me to the theme 'low glide'.

A: You mentioned that your work resembles the act of collecting. You create scenes by adding novelty to ordinary things and by layering unfamiliar elements on top of collected memories. Primarily, the paintings, which depict natural landscapes, encompass narratives that sp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a way, it could be seen as a variation of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painting. I am curious about the memories from which the subjects in the paintings originated, and what stories unfold in your representative works <Low Glide> and <Enigmatic Entities>.

C: When considering that Eastern landscape painting (sansuhwa) is a method that visually reveals the contemporary ideas and thoughts in contrast to Western landscape painting, if I had to categorize my work, it could be named as sansuhwa. Sansuhwa transcends simple landscapes to complexly represent the spirit beyond, incorporating the acade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ra the artist belongs to. In the past, before the development of media, it was common for different individuals to independently develop their worldviews, which likely made the sansuhwa approach more feasible. If we



revisit this approach today, I believe that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sansuhwa offers a more meta-analytical perspective compared to the approach of landscape painting.

My work begins with the question of how 'memory' in some way constructs the present and the future. I aim to visually express these manifestations and constructions of memory, depicting the unfamiliar worlds created by these fragments of memory. These pieces incorporate learned memories of landscape painting and history from before I was born (indirect memories), and the memories formed through relationships and stories in my life (direct memories), which are then called into the current timeline in real-time. I saw this approach as similar to the act of a collector. This methodology was discovered through the study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passed down from the past and developed further through the study of contemporary art, including painting.

In the works <Low Glide> and <Enigmatic Entities>, I express the contact and artistic resonance that occur within specific relationships. In <Low Glide> the primary subject is 'ryuhwaun (willow blossom cloud)', created by collecting images of willow trees and clouds that floated like fragments in memory, and symbolically represented. This event can be said to have erupted due to ongoing contact with and memories of 'ryuhwaun' presented in past exhibitions. A small figure depicted in the center below of the work is reaching out to touch the tip of the willow cloud, in an attitude that lightly brushes against the subject, embodying the concept of 'low glide'. The work <Enigmatic Entities> depicts a scene triggered by the relationship with my wife. The bond of love and companionship can be seen as the most complex yet simplest relationship. I tried to express the emotions felt within such a mutual affili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diverse colors and subjects.

A: Your work often depicts natural subjects, especially trees, clouds, and the moon. I would like to ask if there is a specific reason for choosing such subjects and also the significance of time as depicted in the various scenes of day and night.

C: I focus on the 'in-between' of binary oppositions, such as life and objects, day and night, clarity and blurriness, emptiness and fullness, etc. I seek subjects in the gaps or boundaries that make what we consider clear and definite incompleteness. This search grants me a relentless continuity, preventing a clear conclusion. I believe the greatest power of art lies in this endless continuity. For example, trees have been by our side as symbols of sacred life since ancient times, but they have also been objects that can be processed to suit human needs. In my work, the moon I depict is not the night moon but the 'day moon,' seen between day and night. Clouds are clear yet blurry; fleeting yet abundant, making us curious about what lies beyond them. Thus, I explore subjects that exist between concepts, and allegorically or metaphorically shape my artistic realm.

A: In the past, willows appeared frequently in your work, but this time you have depicted a different kind of tree, the juniper, more often. Is there a particular criteria for selecting the type of tree to be depicted in your work and the meaning you intend to convey with it?

C: Willow trees symbolize fragments of memories of my hometown. In this exhibition, I introduce and expand the worldview of my works by including juniper trees. Junipers are another metaphor for the 'stranger.' Junipers are non-native but familiar trees that are artificially pruned into landscaped forms. They are typically shaped by locals, with their branches and leaves trimmed. During my graduate studies, I saw these landscaped junipers amidst untended, wild forests. Every time I saw them, I muttered to myself, 'bizarre, how bizarre.' Despite their familiarity, they seemed awkward and alien, reminding me of my own experiences as a stranger in an unacquainted place. In this work, unlike other subjects, the juniper with its artificially round shape, depicts a world created by clinging fragments of past memories. You might find yourself murmuring 'how strange and bizarre' like I did, or you might perceive it as beautiful, or somehow imperfect. In between these, I aim to create a space-time that continuously generates questions, rather than offering clear understanding or answers.

A: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reasons for addressing the theme 'stranger' in your works.

C: I continuously view myself as a stranger. It is because of the constant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with different new subjects. The opposite concept, 'settling,' entails a sense of belonging or establishing roots, but it is ultimately transient, not permanent. It is because new relationships may necessitate moving or leaving. I see this as a matter of fate, whether it is my own or a universal human destiny. Historically, humans have constantly relocated, leaving homes for past, present, and future needs. On a broader scale, not just on Earth, but also traveling through the solar system and the galaxy. Personally, I've lived through relocation, and these experiences have shaped my present. Each of us is a stranger to one another. Therefore, a stranger is not merely an object of difference from me, but rather a companion who continues to witness and accept unfamiliarity, thereby shaping history. Therefore, I believe that both I and humanity at large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a stranger.

A: Among your works, there is a work with an interesting title, <Cat Time>. What does 'time' signify here?

C: <Cat Time> depicts a world created by a cat leaving claw marks on a travelling juniper tree. We can never truly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animals that are not human. Just as we cannot fully comprehend another person's feeling or sincerity from their point of view, it is impossible to fully comprehend the world as seen by non-human entities. We can only approach it through our own interpretations and imagination. A cat would never know that I think this way. Seeing a cat that appears every night in front of my studio, staring into the darkness, I suddenly realized that it is a being observing the world I can never know. I thought of that moment as a time of incomplete otherness. And this is what I imagined as the time of the other, the in-between time that I sought to discover through the act of drawing.

A: In your works, occasionally small figures appear. For example, in works like <Blue Winter Night> and <Mysteries of the Three-Body Problem>, figures are present. What subjects do you have in mind when you depict these figures?

C: In my work, figures are shown performing certain actions. In <Blue Winter Night> and <Mysteries of the Three-Body Problem>, they are shown lost in thought, staring ahead, and capturing the moment when they pause for breath. This reflects my own past experience of gazing at the vast sea, a moment of catching my breath while moving towards a goal. This brief instant offered me a sense of freedom far greater than I anticipated, an elusive moment in time that cannot be grasped. Such moments of time ignite artistic imagination, making the act of 'drawing' possible. Artistic thought seems to emerge spontaneously and in these fleeting instants. The figures are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emotions of such moments.

A: I would like to ask about the title and meaning of <Mysteries of the Three-Body Problem>.

C: The concept 'three-body' was inspired during my graduate studies while exploring references on 'interrelations,' and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three-body problem' in physics and Liu Cixin's novel <The Three-Body Problem>. The three-body problem analyzes the mutual gravitational influence of three objects, which becomes significantly more complex than the dynamics of two objects. It suggests a clue to the complexity and real-time nature that are difficult to explain. Liu Cixin expanded on this concept with great imagination in his science fiction novel, which I found very engaging. I also contemplated how 'memory,' both personal and collective, is not something definitively concluded but remains in fragments, reassembling and returning anew in the present. Unorganized memory pieces come together to form the present, which can be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These chaotic conditions reflect the true nature of the world we live in, and how we explain our world and how it led me to incorporate the 'three-body problem' into my work.

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visual gaps and spaces in between seen in your work. This would be in terms of your attempt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illing' and 'emptying'.

C: In Eastern painting, the function of space operates by visually representing an empty space. This space allows for the unknown to enter and exit. In Eastern philosophy, the concept of 'emptiness (gong)' contrasts with the notions of

emptiness or meaningless in the term 'empty'. It refers to what remains meaningless, unpossessed, in other words, a space filled with 'possibility'. If the 'act' of drawing that I engage in is not within the realm of giving meaning, then I believe there is still a gap that cannot be entirely filled, no matter how much I fill the space in my work. Similar to how thin, delicate lines of my short and dry brushstrokes leave slender margins of space. Through this perspective, I continue to find the potential to paint and gain positive energy.

I have contemplated the concept of space in our era. Given the intricate and complex networks that are more densely woven than in any other time in human history, what would the marginal space of today look like? Is there still space for the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that people in the past could engage in? This is not a pessimistic view that the past was right or better and that the present is not. Instead, it is a question posed with the thought that there is still space for us to move forward, namely the possibility, amidst these dense and complex relationships. The current form of marginal space I envision is in the form of thin, elongated lines. They are the white lines that remain between objects. In my work, this marginal boundary allows objects to exist as entities yet interact with other subjects, creating scenes that generate questions.

A: You majored in Korean painting and use materials from Korean painting in your work. However, you do not fully adhere to traditional Korean painting techniques, and have your own way of using materials and techniques.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se materials and their characteristics?

C: In my view, the technical characteristic of my work lies in the blending of traditional and modern methods. For instance, painting on hanji (Korean paper) can be referred to as color painting but it does not follow traditional coloring techniques in detail. My brushwork builds up using dry and short strokes, akin to the way ink is traditionally used. I apply this method to coloring. Additionally, one prominent feature in my work is the use of 'lines,' which is adapted from the expressive technique 'junbeop'. Junbeop refers to a set of methodologies developed in East Asian painting that employs lines to expres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 harmony of scenes. This is a different approach from Western painting, which uses surfaces and volumes to express light and form. Traditionally, this involves the dynamics of the brush, the strength of strokes, and the amount of water used on paper. However, I create unique indentations on hanji, capturing the inherent wrinkles of the subjects I want to depict and expressing indelible marks.

A: In Western painting, it is common to sketch the outline before adding color, but your method of creating an under-drawing by pressing into hanji to leave marks is particularly special and striking.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you use. The effect is somewhat reminiscent of coloring with colored pencils, conveying a dreamlike effect. I am curious about your criteria for choosing colors. Additionally, could you explain how you use materials like 'anchae' and 'hobun'?

C: I deliberate whether to use a single color palette or a variety of colors when creating a scene. When a scene is composed with a single color, the unique atmosphere of that color is highlighted. On the other hand, in a scene mixed with various colors, the shapes themselves or narrative elements are relatively emphasized. The way I reassemble fragments to build the composition also encourages the viewer's gaze to move in multiple directions. A characteristic of my approach is using colors that differ from the actual colors of the subjects to dismantl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m.

Anchae is a water-based paint made from mixing natural pigment powder with animal glue and natural starch. It is an improved version of traditional pigments for better usability. Hobun is a white pigment made from dried and refined shells of oysters or clams, containing calcium components. It has good color development and is resistant to sunlight. To achieve the desired color I mix anchae or sometimes hobun over the marks made by pressuring into hanji.

A: From an artist's perspective, is there a point in this exhibition that you would like viewer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C: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Low Glide》 metaphorically represents my working approach and technique, and symbolically reflects the principal worldview I want to present in my works. Please take a close look at the world constructed by the so-called 'foreign' subjects in the work.

Additionally, my work embodies an approach that blurs and mixes the boundaries between the traditional Korean landscape painting (sansuhwa) and Western landscape painting. Influenced by the composition of the grand landscape paintings by Northern Song Dynasty artists like Fan Kuan and Guo Xi, the adaptation of 'junbeop', the method of depicting subjects with lines and the ways in which natural objects, figures, or living beings interrelate forms the backbone of the artistic world. Meanwhile, the spontaneous and improvisational combination and placement of colors and subjects, along with variations in techniques, adopt a painterly manner. In this exhibition, I hope you will discover these characteristics that are apparent due to my simultaneous study of both genres.

A: What are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recent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compared to your past works?

C: In my previous solo exhibition in Busan, I collected fragments of memories from my hometown as an outsider and depicted them in a new (current) scene. This time, I added the 'juniper tree,' a symbol that can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a 'stranger,' to gather and reassemble these fragments in my work. As always, my work progresses by adding current narratives to past stories. In this exhibition, the juniper, chosen to represent the shadow of the stranger, is the Kaizuka juniper, commonly planted as ornamental trees in public offices and schools. It is a tree with many small branches, allowing various shapes and easy maintenance and thus widely planted. There are claims that this tree is a remnant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ading to its replacement with other trees in some places. This non-native tree has been transplanted by humans to different lands and often appears in artificially rounded landscaping rather than its natural form. During my graduate studies, I frequently observed these aggressively pruned, large junipers. Personally, encountering these trees shortly after moving to a new place evoked ambiguous feelings, neither particularly positive nor negative, but somewhere in between. At night, their shapes seemed to become more alien, capturing my attention daily as an embodiment of a stranger. In this exhibition, I narrate the stranger's attitude and appearance through the juniper tree, intertwining it with the willow tree from the previous exhibition to create a new landscape.

A: Finally, I am curiou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your work and the stories you want to further explore.

C: In my next work, I want to explore the theme of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which aligns with the themes I have been working on so far. While my previous works have served as the main branches from which smaller branches extend, in the next phase, I plan to capture the forms of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researching subjects that can metaphorically or analogously represent these concepts. Through this, I intend to continue piecing together collected fragments of stories to delve into the world we live in.

## 6. CV

### CHA Hyeonwook

Born in 1987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 EDUCATION

2022 MFA Fine Art,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12 BFA Department of Fine Ar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4 *Low Glid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3 *Stranger*, Gallery Playlist, Busan, Korea
- 2022 *A Little More, Closer*, The Necessaries, Seoul, Korea
- 2020 *Staying through the Shadow*, Gallery 175, Seoul, Korea
- 2018 *Night Blooming Flowers*, Daegu Art Center, Daegu, Korea
- 2015 *Works from Reminiscenc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3 *Mono-mansion*, Outhouse, Seoul, Korea  
*Happy Birthday 1: Green to Blue*, GBlue Gallery, Seoul, Korea
- 2022 *Ad Astra*, Bando Cultural Foundation Ivy Lounge, Hwaseong, Korea  
*Our Lives, Our Moments*,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BGA INDEX : OPEN STORAGE*, BGA Index, Seoul, Korea  
*ART FESTA IN JEJU*, Sanjicheon Gallery, Jeju, Korea  
*Water Waves Flowing Downwards, Kaleidoscope Illuminating Tomorrow*, The Necessaries, Seoul, Korea
- 2021 *Shade of Shadows*, Space Dokrip, Daegu, Korea  
*INVISIBLE MONUMENTS*, Cian Museum, Yeongcheon, Korea  
*Hangman*, Changsungdong Lab, Seoul, Korea
- 2020 *Culture Tube 2020*, Shinsegae Gallery, Daegu, Korea  
*Pandemic*,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Where Late the Sweet Birds Sang*, Sansumunhwa, Seoul, Korea  
*The Forest that Came to Us*, Supia museum of Art, Chilgok-gun, Korea
- 2019 *For the Picture is Vast*, Art Delight, Seoul, Korea  
*Culture Tube 2019*, Shinsegae Gallery, Daegu, Korea  
*Slide Speedily but Lightly*, Dongsomun, Seoul, Korea
- 2018 *Middle of Nowhere*, Gachang Art Studio, Daegu, Korea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Oksan Art Museum, Jindo, Korea  
*Drawing After Dreaming*, Zaha Art Museum, Seoul, Korea
- 2017 *Prince Anpyung's Secret Garden*, Zaha Museum, Seoul, Korea  
*Expression of Landscape*,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Nangmanchangje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Daegu, Korea  
*Axis 2017*, 021 Gallery, Daegu, Korea
- 2016 *Vibrant Aura*, POSCO gallery, Pohang, Korea  
*Document the Traces of 10 Years, the Future of the 10 Years*,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MOUNTAINS*, BODE Galerie, Daegu, Korea
- 2015 *BODE YOUNG ARTIST PROJECT*, BODE Galerie, Daegu, Korea

- 2014 *The Water, Light from Gangjeong*, The ARC, Daegu, Korea  
*7 Sense & 8 Sensibility*,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Superb Soar*, Shin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Critical Point*, Space K, Daegu, Korea
- 2013 *Triangle Art Festival*,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Eyes of the landscape*, Open Space Bae, Busan, Korea  
*Art space Purl Young Project3: 0% 3*, Art Space Purl, Daegu, Korea

**AWARDS**

- 2020 The 4th Gwangju Hwaru Artist Awards, Gwangju Bank, Gwangju, Korea  
2018 Young Artist of the Year, Daegu Art Center, Daegu, Korea

**RESIDENCIES**

- 2014-15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12-13 Gachang Art Studio, Daegu, Korea

**SELECTED COLLECTIONS**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Art Bank, Korea  
Daegu Art Museum, Korea  
Daegu Art Center,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Korea